

장관님 모두말씀

〔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점검회의」 겸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23. 11. 8 〕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철곤 현대건설기계 사장님,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님,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님,
이동철 하나마이크론 대표님,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님,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님, 박재석 SNT다이내믹스 대표님,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님, 정경순 리트코 부회장님,
이인호 무보 사장님, 김현철 화합융합시험연구원장님,
김윤태 코트라 부사장님, 김형준 수출입은행 부행장님,
그밖에 협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수출입 평가 및 전망 】

우리 수출이 10월 들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3개월 만에 수출플러스를 달성하였습니다.

* 수출증감률(%) : ('22.4Q) △10.0 → ('23.1Q) △12.7 → (2Q) △12.0 → (3Q) △9.7 → (10월) +5.1

무역수지도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22년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 무역수지(억불) : ('23.1~5월) △274 → (6월) +12 → (7월) +18 → (8월) +10 → (9월) +37 → (10월) +16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주력업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올해 최저 감소율(△3.1%)을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對美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對中 수출도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00억불 이상을 달성하는 등
주요 시장별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반등은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엄중한 대외여건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과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혼신의 노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신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 총 17번의 해외 순방에서
100여차례 이상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거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국무회의(10.30)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5천만의 시장에서 5억의 시장,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新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수출 원팀코리아’를 통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 최근 사우디 및 카타르 정상순방 성과 】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는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이는 올해초 300억불 투자 확약이 성사된 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하고
‘新중동의 봄’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에서 156억불(51건 계약·MOU), 카타르에서 46억불(12건 계약·MOU) 규모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중동 지역에 총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이 뚝 운동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현대차는 사우디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지역 완성차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와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출 확대와 대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의료, AI 등 첨단산업과 태양광,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CFE), 방산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50여년 전 열사의 땅에서 보여준 기적을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도록, 지난 2월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우디 290억불(26건) 및 UAE 61억불(32건)의 성과이행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오늘 「제2차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번 국민방문 성과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후속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수출 상승 모멘텀 강화를 위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 】

올해 남은 두 달과 내년 상반기는 수출 확대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①세계적 고금리 기조, ②美-中 간 공급망 재편, ③고유가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3대 리스크 요인과 함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은 수출 확대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대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오늘 발표하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을 통해

①금융, ②마케팅, ③인증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수출계약부터, 선적, 대금수령까지 수출 전단계에 걸쳐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내년 6월까지 일괄적으로 50% 인하하고,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성수기에 북미, EU, 중국 등 총 33개국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를 30%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환율 변동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한시적으로 50% 이상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수출 바우처 지원을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중 수출 상담·전시회를 86회 개최하여 총 2,377개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수출 유망국 10개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테크기업,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출성장사다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수출기업들이 큰 장벽으로 여겼던
해외인증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해외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비용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차 등 新수출동력을 중심으로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 품목을 185개(기존 141개)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전용운반선 부족 문제,
평택항 자동차 부두 야적공간 부족 문제 등
자동차 업계의 물류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수출현장방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당부말씀 】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는 더욱 더 값진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수출이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경제 활성화의 선봉장으로서
‘수출 원팀코리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부처와 수출지원기관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